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총성 제목 :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성경:다니엘 6장 19-28절

19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20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 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 을 굴에서 올리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4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25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이다

26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 하였더라 (단6:19-28)

다니엘 이야기 서론.

<

다리오는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 도마다 도지사를 세웠다.

총리 3명을 두어 도지사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기에 그를 총리 중 으뜸으로 세워 총리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방사람, 다른 총리와 도지사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에게 비리를 찾고자 하나 찾을길이 없어 신앙을 꼬투리로 잡는다.

그들이 다니엘만 빼고 모여 작당을 하고 30일 동안에는 왕에게만 구하고 다른 신들에게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 시켰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루에 세번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다.

대적들이 이를 빌미로 왕에게 고발하였다.

13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은 하루 종일 백방으로 다니엘을 살리려고 구명운동을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도울 수 없었다. 그러는 중에 왕은 누구 누구가 다니엘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다니엘을 겨냥하고 자기를 속이고 금령을 만들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야만 하였다.

다니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자굴로 들어갔고,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자신이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생존의 가장 큰 요인이었는지 모른다.

16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의 이 말이 다니엘의 삶을 증언한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하였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왕은 항상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기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다.

왕은 조서를 내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 해야 한다고 공포 하였다. 이 말은 앞으로 다니엘을 존중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

다니엘은 성실한 사람

다니엘은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시길 원하신다. 불가능한게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간절하게 원하지 않아서이다.)

왕이 가장 목말라 하는 사람은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가장 목말라 하는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모든 주권자들이 가장 찾고 있는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이 가장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인생의 초점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지위나 명예나 소유나 쾌락에 초점이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다.

물론 그런 사람 찾기 힘들다. 더구나 내 사람이 되기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거나 충실하기 힘들다. 3개월은 그럴 수 있다. 2년 정도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서서히 유혹에 빠진다. 비리에 연

루된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동료들 불법에 끌어 들여야 한다. 그것이 안전장치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 주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존중해야 한다. 그가 자기처럼 비리에 연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자신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다.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자.

지금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결단하자.

아무도 비방하지 않기로 결단하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천국 제목:천국에서 먼저 되기 말씀:마태복음
20장1-16절

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2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 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5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서 있느냐

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 하니

9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지라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마 20:1-16)

어떻게 먼저 될까?

기왕 경주하는 것, 먼저해야 하지 않을까?

꼴찌는 면해야 하지 않을까?

부끄럽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천국이 진짜 있다면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

정말 턱걸이 구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상황인가?

아니라면 꼴찌는 정말 부끄러운 일. 먼저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1. 추수하기 위해서 기다리며 분주하자.

2. 천국은 정해진 상급이 있다.

-상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은 악한 말이 될 수 있다.

3. 늦더라도 아주 늦지 않는다면 천국에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포도 수확이 핵심이 아니라, 늦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이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나중 된 자가 먼저되는 계산법이 천국에 있으니 주의요망.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꼴찌된다.

-천국에서는 도박을 하는가? 아니다. 정말 진실되고 정직한 계산법이다. 왜 이러나?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치냐? 영혼이 가치다. 겸손이 가치다. 순전이 가치다. 사랑이 가치다. 열정이 가치다.(사랑과 열정 때문에 주인은 시장에 간다.) 선한 것이 가치다. 그래서 가치 필터가 있기 때문에 1시간만 일해도 가치있는 일이 될 수 있다.

- 뭐가 가치로 치지 않는 것인가? 일한 시간. 흘린 땀. 벌어들인 수확.

- 무가치하거나 악한 것은? 원망, 시기, 미움, 판단, 비판, 핑계, 열정이 식는 것 등 이것은 천국의 가치관으로 보면 마귀적인 것.

- 일 많이 해도 원망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그는 주인을 칭찬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그도 먼저된 자가 될 것이다.

- 그래서 꼴찌. 예수님은 이런 사람 대꾸도 하지 않는데, 굳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친절하신 예수님께서서 말대답을 하셨다.

의료선교명단

번호	반장	이름	번호	반장	이름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의료선교명단

번호	반장	이름	번호	반장	이름
31			46		
32			47		
33			48		
34			49		
35			50		
36			51		
37			52		
38			53		
39			54		
40			55		
41			56		
42			57		
43			58		
44			59		
45			60		